

학보사 수습기자 임명식을 가지다



학보사 수습기자 명단

| 학과 | 이름 | 학과 | 이름 |
|-----------|-----|-----------|-----|
| 멀티미디어컨텐츠과 | 김평은 | 멀티미디어컨텐츠과 | 김경일 |
| 건축과 | 임재희 | 세무회계과 | 최보운 |
| 기계설계과 | 최지인 | 산업경영과 | 최민성 |
| 멀티미디어컨텐츠과 | 김주리 | | |

10월 27일 화요일 학보사 주관으로 학보사실(목양관 2층 211호)에서 수습기자 임명식이 있었다. 우리 대학이 설립되면서 학교의 부속기관으로 같이 창설 된 학보사

는 올해 26기 학보사 수습기자를 모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보사 주간인 안동찬 교수(멀티미디어컨텐츠과)의 주관으로 자체 임명식을 진행했다. 비대면 수업의 진행으로 학우들의 학교 방문이 적어 수습기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보사 정기자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지원서를 받았다. 지원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로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그 후 학우들의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유무 확인 등 코로나-19 규칙을 엄격히 지켜 대면 면접으로 2차 심사를 진행했다.

작년에 비해 지원율이 많이 감소한 모집이고 늦은 시기의 임명식을 진행해 아쉬움이 남았지만 수습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화기애애한 임명식을 가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교내 임명식 진행 여부가 확실치 않았지만, 학보사의 첫 걸음을 내딛는 수습기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편집장 이창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학보사 페이스북 페이지 문의
skfk94skfk@naver.com



INDEX



- ▶ 건강보험제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2면
- ▶ 친환경 코스프레 3면
- ▶ 새롭게 활용되는 쓰레기·코로나 블루 극복 4면
- ▶ 증가하는 전자책 이용자와 전자책 시장 5면
- ▶ 연합뉴스TV 영상취재부 취업기 6면
- ▶ 스마트폰 중독 7면
- ▶ 미술 속 인물(2) 8면
- ▶ 전면광고 9면
- ▶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10면
- ▶ 오피니언 11면
- ▶ 만평·십자말 풀이 12면
- ▶ 때론 '싫어요'가 더 '좋아요' 13면
- ▶ 모든 노인은 선배다 14면
- ▶ "인생은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5면
- ▶ 해설이 있는 시 16면

제27대 학생회장 명단

현재 우리대학 학과 학회장은 다음과 같다.

| | | | |
|----------|-----|-----------|-----|
| 기계과 | 이동준 | 기계설계과 | 진태식 |
| 전기과 | 심호준 | 국제관광경영과 | 김가은 |
| 전자정보통신과 | 박성호 | 사회복지과 | 미 정 |
| 산업디자인과 | 우정윤 | 국제경영과 | 서슬옹 |
| 생명환경공학과 | 김조영 | 실내디자인과 | 정의준 |
| 건설정보시스템과 | 장수지 | 멀티미디어컨텐츠과 | 김민지 |
| 바이오생명과학과 | 홍예림 | 호텔외식경영과 | 김효빈 |
| 컴퓨터정보과 | 김성범 | 뷰티디자인과 | 송지현 |
| 컴퓨터정보과 | 김성범 | 경호경찰행정과 | 박찬홍 |
| 건축과 | 김진현 | 세무회계과 | 이경은 |
| 호텔조리과 | 김민준 | 생활음악과 | 박수호 |
| 사무비서행정과 | 조아영 | 아동보육과 | 이준희 |



건강보험제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경우 질병 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 분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이라는 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이 강제되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납부 의무가 부여된다.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당해 직장에서 받게 되는 보수 월액과 만약 직장 외로도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직장 외로 받는 소득월액 X 현행 직장가입자의 6.46% 보험료율 + 7.38%의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산정기준은 '보험료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세 및 월세를 포함한 주택과 자동차 등을 바탕으로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해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한다. 그 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0>의 점수에서 195.8원이 곱해진 금액을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로 한다.

부편집장 윤혜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2020〉

기본중위소득 70%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094,000 | 69,920 | 26,904 | 70,080 |
| 3인 | 2,709,000 | 90,383 | 68,412 | 91,370 |
| 4인 | 3,324,000 | 111,701 | 107,524 | 113,007 |
| 5인 | 3,939,000 | 131,392 | 123,752 | 133,024 |
| 6인 | 4,554,000 | 151,927 | 150,605 | 153,994 |
| 7인 | 5,173,000 | 174,636 | 178,276 | 177,425 |
| 8인 | 5,791,000 | 195,200 | 203,127 | 198,402 |
| 9인 | 6,409,000 | 216,141 | 228,554 | 220,167 |
| 10인 | 7,028,000 | 237,652 | 254,909 | 242,715 |

기본중위소득 80%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394,000 | 79,924 | 45,003 | 80,076 |
| 3인 | 3,096,000 | 104,090 | 95,023 | 105,268 |
| 4인 | 3,799,000 | 126,909 | 118,159 | 128,407 |
| 5인 | 4,502,000 | 151,927 | 150,605 | 153,994 |
| 6인 | 5,205,000 | 174,636 | 178,276 | 177,425 |
| 7인 | 5,912,000 | 198,402 | 207,077 | 201,381 |
| 8인 | 6,618,000 | 224,298 | 238,415 | 228,710 |
| 9인 | 7,325,000 | 248,116 | 267,395 | 253,956 |
| 10인 | 8,032,000 | 268,311 | 289,976 | 276,843 |

기본중위소득 90%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693,000 | 89,997 | 66,574 | 90,383 |
| 3인 | 3,484,000 | 116,578 | 107,524 | 117,289 |
| 4인 | 4,274,000 | 144,298 | 140,967 | 146,236 |
| 5인 | 5,065,000 | 169,219 | 172,149 | 171,908 |
| 6인 | 5,856,000 | 198,402 | 207,077 | 201,381 |
| 7인 | 6,651,000 | 224,298 | 238,415 | 228,710 |
| 8인 | 7,446,000 | 253,956 | 274,444 | 260,770 |
| 9인 | 8,241,000 | 276,843 | 298,842 | 286,647 |
| 10인 | 9,036,000 | 311,116 | 333,411 | 326,561 |

기본중위소득 100%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92,000 | 100,050 | 85,837 | 100,076 |
| 3인 | 3,871,000 | 129,924 | 121,735 | 131,392 |
| 4인 | 4,749,000 | 160,546 | 160,865 | 162,883 |
| 5인 | 5,628,000 | 189,063 | 195,462 | 192,080 |
| 6인 | 6,50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 7인 | 7,390,000 | 248,116 | 267,395 | 253,956 |
| 8인 | 8,273,000 | 276,843 | 298,842 | 286,647 |
| 9인 | 9,156,000 | 311,116 | 333,411 | 326,561 |
| 10인 | 10,04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출처: Google



친환경 코스프레

애플에서는 전자기기의 필수품인 충전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 친환경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지만 여기에는 이면성이 존재한다.

공식적으로 애플에서는 “아이폰 제품군 전반에 걸쳐 우리는 구입자 대부분이 사용은커녕 상자에서 꺼내지도 않는 전원 어댑터와 이어팟 대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요긴한 고속 충전이 가능한 USB-C 라이트닝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줄어든 부피만큼 포장도 줄어들어 운송 시 한 번에 더 많은 수의 제품 박스를 실을 수 있고 결국 총 운송 횟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의 제조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들 역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 덕분에 연간 탄소 배출량을 2백만 톤 넘게 줄일 수 있죠”라는 주장을 하며 배송 운반에서 제품을 70% 더 많이 실을 수 있어서 1년간 45만 대의 자동차를 거리에서 없앤 것과 마찬가지로의 탄소 저감과 글로벌 물류 체인에서의 탄소배출량이 줄어든다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화물운송과 여객수송은 대부분 트럭으로 이용이 되는데 트럭에 탑재된 대형 디젤 엔진이 오래전부터 환경오염의 원인과 도로파손의 주원인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 새 아이폰에 탑재하는 카메라와 탭틱 엔진 등의 자석류 부품은 100% 재활용 희토류를 사용에 만드는 방안을 사용했다. 애플의 친환경 정책은 예전부터 시행되었다.

애플은 2015년 기기 생산 공급망 전반에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애플이 충전기를 제외하고도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두고 원가절감을 위한 행위라는 지적을 했다. 현재 사용하는 충전기는 대부분 USB-A 타입이지만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의 기본 구성인 USB-C 라이트닝 케이블이기 때문에 꼽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이 고가의 정품 애플 충전기를 구입하도록 애플이 의도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고속 충전이 가능한 USB-C 라이트닝을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하지만 어댑터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고속 충전을 추가 비용 없이 체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USB-C 라이트닝 케이블 규격에 맞는 충전기는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밖에 없다. 사용하지 않는 충전기들이 많기에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맞지만 작년에 바뀐 방식을 일상화시키는 행위는 뻔뻔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환경오염을 걱정했다면 소형 가전 충전단자를 일상화된 타입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는 2010년 제정된 이어폰 필수 포함 법령에 따라 이어폰이 제공된다.

본체 상자 자체는 동일하나, 별도의 상자로 이어폰을 포함하여 이중포장을 한다. 이를 두고 친환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가죽은 염색 과정에서 오

염을 유발하고 무두질 과정에서 크롬을 사용한다. 크롬은 관련 종사자들의 손을 보면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도 피부를 다 상하게 만드는 독한 약물이다. 이 크롬이 폐수로 배출되어 상당한 오염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애플은 플라스틱보다 환경을 더 파괴하는 가죽 케이스를 당당히 비싸게 판매하기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다.

현재 정책의 손해는 소비자들이 지는 게 분명하다. 애플의 환경 정책은 미래를 위해 지지하나 조금 시기상조로 빠르게 움직이고 소비자들에게 따라오라는 느낌이 있다.

정기자 박찬영



새롭게 활용되는 쓰레기

몇몇 사람들은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듣고 ‘업사이클링은 뭐지?’ , ‘리사이클링과 다른 점이 있을까?’ , ‘리사이클링과 같은 말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사이클링(Re-cycling)이란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것을 수선하여 재사용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의 상위 개념이 바로 업사이클링(UP-cycling)이다. 업사이클링은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한다는 차원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디자인 또는 활용도 등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새활용이라고 말한다. 업사이클링의 예로는 재활용 의류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가방으로 만든다거나, 버려진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장바구니로 만들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 먹이로 활용하여 얻은 지렁이의 배설물을 이용해 만든 비료 등이 해당된다.



예전에는 업사이클링 제품들의 가격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의 손길로 새로운 가치가 더해진다는 특징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창조성과 환경보호라는 가

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사그라들었다. 또한, 업사이클링 소비 활동은 “다는 낭비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나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 환경까지 배려하는 소비”라는 의견도 생겼다.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원이 지속해서 선순환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환경보호에도 도움을 준다는 특징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사이클링의 다양한 사례와 가지각색의 기업들이 생겨났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는 CJ대한통운과 UN SDGs협회, 아트임팩트가 함께 진행하는 ‘플라스틱 이니셔티브’ 업무 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삼사가 서로 상호협력하여 지구 환경보호를 위하여 탄소 및 플라스틱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협약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고강도 기능성 섬유 및 신소재 유니폼 등으로 재생산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두 번째 사례로는 현대자동차에서 6개의 글로벌 브랜드와 기획한 ‘리스타일(Re:Style) 2020’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작년부터 업사이클링을 전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로 전파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폐기물의 다양한 활용방면을 보여주고자 작년에는 폐가죽시트만 재활용하였다면 올해는 차량 유리나 카펫, 에어백 등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하여 자동차 안전띠와 유리를 재활용하여 목

걸이와 팔찌를 제작하거나,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버려지는 카펫 원단을 이용하여 토트백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그리고 이밖에도 삼성전자에서는 TV 포장재를 재활용하여 리모컨 수납함이나 잡지꽂이, 반려동물용 물품 등 다양한 형태로 조합할 수 있는 에코 패키지를 선보이거나, 남양유업에서는 ‘빨대를 돌(doll)려줘’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업사이클링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프라이탁이 있다. 프라이탁은 5년 이상 탄 트럭의 방수포와 자전거 튜브, 안전띠 등으로 가방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방수포의 여러 면을 사용하여 가방마다 색과 패턴을 다르게 디자인한 것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끌었다.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브랜드로 ‘플리츠 마마’가 있다. 플리츠 마마는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가방을 만드는 브랜드로 페트병을 이용하여 토트백의 주름을 만들고,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리젠’이라는 원단을 만들고 이를 가방을 제작한다. 이밖에도 버려진 캔버스 회화 작품들을 가방으로 재탄생시키는 ‘얼킨’과 못난이 농산물을 비건 뷰티 제품으로 개발하는 ‘브로컬리컴퍼니’, 버려지는 방화복을 재활용하여 팔찌와 가방 등 패션 소품을 제작하는 ‘119 레오’ 등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한다.

정기자 구지현

코로나 블루 극복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코로나’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blue)’의 합성어이다.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자가 격리와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증폭되어 불안장애까지 발달한 경우를 말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코로나 트라우마’라고도 불린다.

코로나 상황에서 밖에 나가거나 놀러 가는 것이 제한되며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제한되는 등 밖에서 하는 활동을 주로 했던 사람 입장에서 많은 것이 억압받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람들의 우울감이 생겨났다. 또한,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수와 코로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뉴스 등을 접하면서 발생한 불안감도 우울증 발생에 한 몫 한다. 이처럼 코로나 블루는 심리적 억압을 원인으로 발생한다.

코로나 블루의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 불면증 등이 있으며, 불안하고 쉽게 놀라는 증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화가 자주 나고 짜증이 많아지며, 원하지 않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 자가 진단 리스트 | | | | |
|--|----|-------|--------|-------|
| 지난 2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문제로 곤란을 겪으셨나요? | | | | |
| | 없음 | 매일 동안 | 일주일 이상 | 거의 매일 |
|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 0점 | 1점 | 2점 | 3점 |
|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 0점 | 1점 | 2점 | 3점 |
|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너무 많이 잤다. | 0점 | 1점 | 2점 | 3점 |
|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 0점 | 1점 | 2점 | 3점 |
| 타인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혹은 너무 친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 0점 | 1점 | 2점 | 3점 |
|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 0점 | 1점 | 2점 | 3점 |
|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 0점 | 1점 | 2점 | 3점 |
|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 0점 | 1점 | 2점 | 3점 |
|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 0점 | 1점 | 2점 | 3점 |

* 0~4점 우울증 아님, 5~9점 가벼운 우울증, 10~14점 중간 정도 우울증, 15~19점 치료 요함, 20~27점 적극적 치료 요함.

** 출처 : 한국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코로나 블루는 지난 2주간 다음 증상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테스트해볼 수 있다. 위의 다음 증상들이 없음, 며칠 동안,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로 체크하여 테스트하는 방법이다.

1)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2)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3)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깬다. 혹은 너무 많이 잤다. 4)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5) 타인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혹은 너무 친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6)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7)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8)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9)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0~4점 우울증 아님, 5~9점 가벼운 우울증, 10~14점 중간 정도 우울증, 15~19점 치료 요함, 20~27점 적극적 치료 요함.

*출처 : [한글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코로나19 감염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손 씻기, 손 소독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기 등)을 계속하여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의 공포를 잊기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 패턴(수면 및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의 불안감을 떨쳐 내기 위해 좁은 실내공간에서 하는 운동보다는 넓은 공원에서 산책이나 혼자 할 수 있는 야외 운동을 하며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좋다. 또는 홈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운동 루틴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하는 것이 좋다. 가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명상을 하는 것도 좋다.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명상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앉아서 하는 명상보다는 누워서 하는 명상을 추천한다.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서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것에 집중을 하여 따라다닌다. 그렇다면 어느새 통증을 느끼는 주체와 자신이라는 개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고 스트레스가 해소될 것이다. 음악, 미술, 독서, 영화감상 등과 같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취미생활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코로나19 가짜 뉴스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재난상황 속의 가짜 뉴스는 더욱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최근 소금물로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가짜 뉴스가 있었다. 지난 3월, 경기도 한 교회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신도들의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분사해, 오히려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있었다. 잘못된 의학적정보와 코로나19의 확산, 기원, 예방법 등을 넘어 정치적 음모론 등에 대한 내용까

지 광범위하게 폐해가 심각했다.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믿지 않을 가짜 뉴스를 믿고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2020년 3월 23일에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김현수 정신과 전문의가 버클리대 Greater Good 과학센터의 self-compassion 명상 내용과 크리스 거머의 self-compassion shor break를 참고하고 고려하여 재구성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마음이 자꾸 지쳐갈 때, 필요한 마음 영양제 그것이 “자기 공감”입니다. 자신을 애처롭게 느끼고, 자꾸 약해지는 마음이 드는 요즘 자신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공감”이라는 영양제를 자신에게 주고자 하는 시간은 1분 30초면 충분합니다. 1. 자신에게 말해주기(10초~30초) “모두가 힘든 시간이야. 우리는 지금 힘들고, 또 상처받고 있어.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린 혼자가 아니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변의 모두가 함께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어. 지금 제일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나 자신을 돌보는 거야.” 등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말 해줍니다. 2. 자기 공감 행동(30초 내외) 여기서부터는 행동도 함께합니다. 마음이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가슴을 두 손으로 포개면서, 가슴 속 마음을 꺼내어 당신의 두 손 위에 살포시 얹어주세요. 마음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지친 마음을 온기를 불어넣어 따뜻하게 해주고 잘 보듬어주시고 쓰다듬어주세요. 3. 자신에게 말해주기(15초~30초 내외)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나부터 내게 잘해주자.”, “내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해주자.” 만일 두 문장으로 부족하면 스스로 필요한 문장을 자식에게 해주세요. “잘 받아들이자.”, “강해지자.”, “사랑하며 살아가자.” 등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어려우면, 사랑하는 친구나 다른 가족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꺼내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분에게 좋은 영향이 갈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대단하지 않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다시 뿌듯해지고, 그래서 발걸음이 반걸음 빨라지면 다행일 것 같아요.] 라고 코로나 블루로 인해 지친 시민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출처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http://covid19seoulmind.org/prescription/2847/>]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증상을 스스로 잘 보살펴주어 극복하여야 하며,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의 코로나 블루에도 신경을 써주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길 바란다. 마스크 잘 끼기, 손 소독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히 지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행복한 일상이 우리에게 돌아오길 바란다.

수습기자 최지인

증가하는 전자책 이용자와 전자책 시장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원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들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 자료를 검색하고, 게임을 하거나 영화, 드라마 등을 보기도 하며 나아가 스마트폰을 통해 e-Book(이하 전자책)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종이책 연간 독서율은 1년간(2018.10.1.~2019.9.30.) 52.1%, 독서량은 6.1권으로 2017년에 비해 각각 7.8%p, 2.2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에도 종이책 연간 독서율은 90.7%, 독서량은 32.4권으로, 2017년 대비 독서량은 3.9권 증가하였지만 독서율은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은 16.5%, 초중고교 학생 37.2%로 2017년에 비해서 2.4%p, 7.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중심으로 큰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전자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레마 시리즈나 리더피퍼 시리즈와 같은 전용 리더기가 필수였으나 이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다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자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전자책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은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 리디북스가 있으며 그 외에도 온라인 서점인 알라딘, YES24, 교보문고 등도 전자책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카카오페이지 약 287만 명, 네이버시리즈 약 69만 명, 리디북스 약 37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OVID-19(이하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서적의 판매가 급증하였고, 동시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리디북스는 2017년 약 1억 1,600만 회의 도서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였고, 2018년 상반기에만 약 8,600만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

전자책 사용자 증가에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 출범도 큰 역할을 하였다.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는 리디북스-리디셀렉트, YES24-YES24 북클럽, 교보문고-sam이 있으며 온라인 서점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로는 밀리의 서재가 있다. 이런 전자책 구독 서비스들은 구독 첫 달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자책 구독 서비스들은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인 왓츠나 넷플릭스와 비슷한 가격이며, 책 한 권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 플랫폼과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9,900원으로 합리적이다. 이러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는 장점으로는 책 한 권에 안 되는 돈으로 많은 책을 읽어볼 수 있어 가격적 부담 감소, 흥미가 없는 분야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 결제의 간편함 등이 있다. 하지만 원하는 책이 전자책 구독 서비스 플랫폼에 없을 수 있다는 크나큰 단점이 있다. 실제로 플랫폼마다 등록되어 있는 서적의 수는 많지만 선호도가 낮은 책들도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려고 하는 책은 별도로 구매해서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설을 즐겨 읽는 사람에게 메리트가 있는 서비스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설에 비해서 교양관련 서적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소설보다 교양관련 서적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서비스로 다가올 것이다.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독서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책의 부피 때문에 휴대하면서 읽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요즘에는 들고 다니기 좋은 크기의 책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책들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다. 하지만 그에 반해 전자책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전자책 전용 기기인 이북리더기만 하더라도 실제 종이책보다 가벼운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서 휴대가 간편하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독서가 가능한 것이

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본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이책은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혹은 컴퓨터,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을 열고 검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전자책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주석페이지까지 넘기지 않아도 전자책 자체에서 주석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책의 설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구매가 간편하며 북마크한 부분이 간편하게 공유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책은 이미 인쇄되어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설정을 바꿀 수 없지만 전자책은 PDF 파일이 아닌 이상 애플리케이션 측에서 폰트, 크기, 줄간격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고 싶은 책이 있을 때 서점까지 가거나 온라인 서점으로 주문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구매하려는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미리보기를 보고 구매를 하면 택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은 급하게 책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게 있을 때 빛을 발한다. 마지막으로 종이책은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할 때 사진을 찍거나 직접 손으로 써야하지만 전자책은 드래그를 하고 뷰어 내 기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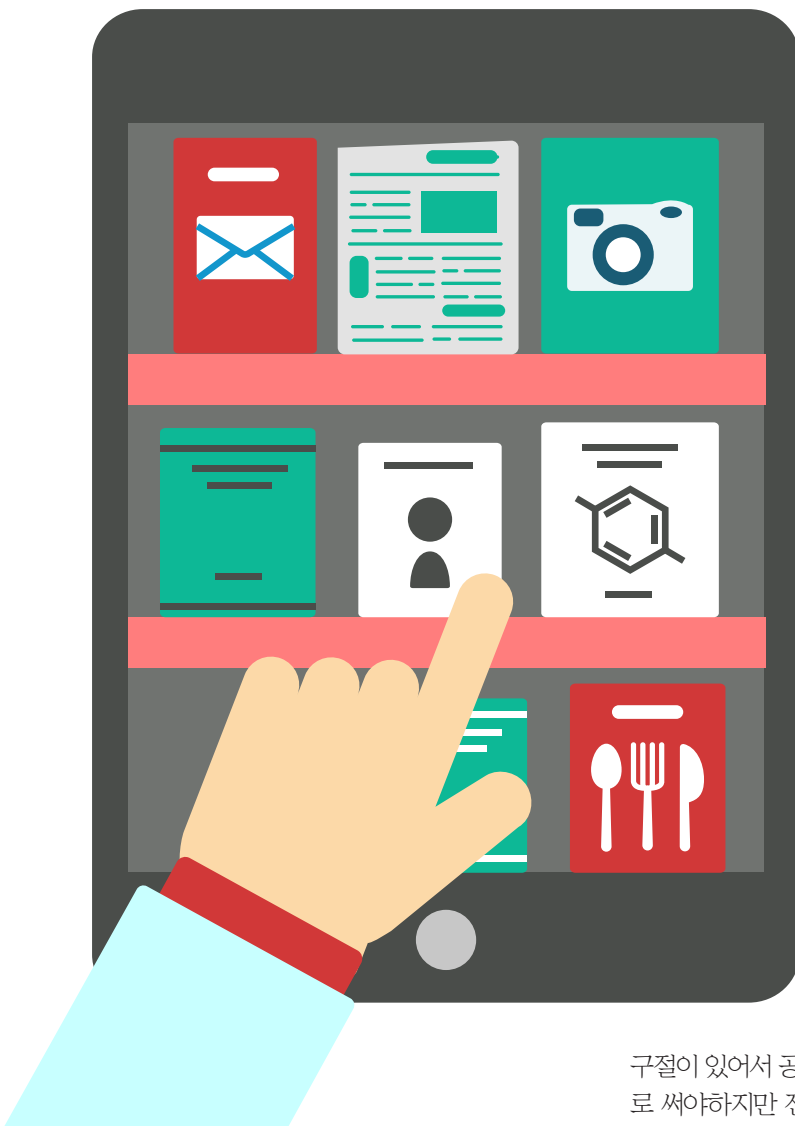
▲ 전자책 구독 서비스 플랫폼들

공유를 하면 된다. 거기에 전자책 뷰어 내 검색기능으로 찾고자 하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도 있고,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서 기기를 변경해도 이전에 그었던 밑줄이나 메모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으며 전등 없이도 책을 읽을 수 있다. 종이 절약도 가능하고, 신간의 경우에는 종이책보다 합선이 되어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책이 종이책과 비교했을 때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종이책의 질감과 존재감을 전자책에서는 느끼기가 어렵다. 종으로 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는 것과 단순히 종이 넘어가는 효과가 있는 화면을 읽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리고 그 질감과 존재감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종이책에 비해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다. 이 문제로 인해 전자책보다 종이책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또한 전자책은 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의 존재를 까먹을 가능성이 높다. 다 읽은 책을 남에게 빌려주기도 어렵고, 책을 구매한 플랫폼이 사라지면 다운받아놓지 않은 책이 사라진다는 것도 큰 단점이다. 실제로 KT에서 운영하던 올레 이북(Olleh e-Book) 플랫폼이 사라지면서 구매했던 책들을 읽을 수 없게 된 경우가 있다. 올레 측에서는 전자책 전문 기업인 '바로북'으로 이관시키는 도움을 줬지만 일부 도서는 이관이 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법적적인 제재는 없었다. 또한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나오고, 화면 때문에 눈이 피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잉크를 사용하는 이북리더기를 사용하면 보완가능한 부분이지만 현재 전자잉크를 사용하는 이북리더기는 액정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장점과 단점들로 인해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책을 선호하기도 하고,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선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도서관 이용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만지는 실물 종이책을 만지는 것이 꺼려지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 되는 것이 좋는데 교내 전자도서관에는 책이 현저하게 적다. 종이책으로 된 책은 많지만 도서관 이용이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는 책을 빌려서 보려면 전자도서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는데 책이 적은 탓에 보고 싶은 책을 빌려 보기 어렵다.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교내 전자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책은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에 365권, 영풍문고 전자도서관에 698권이다. 두 도서관을 합쳐도 1,000권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다. 여기서 중복되는 도서를 제외하면 수는 더 줄어든 것이다. 보고 싶은 책을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빌려보고 싶다면 교내 전자도서관에 자료구입신청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구입신청은 신안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수습기자 김평은



구절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할 때 사진을 찍거나 직접 손으로 써야하지만 전자책은 드래그를 하고 뷰어 내 기능으로

연합뉴스TV 영상취재부 취업기

멀티미디어콘텐츠과 2학년 손승우

2020년 초 나는 약 4~5년간의 휴학을 마치고 복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자택에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는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학교생활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래도 많은 후배와 교수님들의 도움과 배려로 2020년 1학기를 나름대로 만족 이상의 수준으로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방학 기간에 현재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와 남은 2학기도 잘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1학기에는 운이 좋아서 많은 도움과 배려를 받았지만, 마지막 학기는 잘 마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으며, 당시 나는 아르바이트를 2가지를 병행하고 있었기에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걱정이 들었다. 그렇기에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걱정과 의문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멀티미디어콘텐츠과에서 방송 분야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인 방송아카데미를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나는 방송아카데미를 듣고 '야, 나는 취업하기엔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에 집중하며 남은 시간엔 놀기 바빴다. 그러던 중 담당자분이 전화하셨고 "승우씨 **TV에 AD로 지원해보시겠어요?"라고 물어보셨다. 그러나 나는 "AD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라고 물어볼 정도로 아는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지원하기로 했다. 며칠 뒤 담당자분께서는 아쉽게도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했다. 사실 내가 합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담당자분께 전화가 왔고 "승우씨 *** 하고 연합뉴스TV 카메라 보조 자리에 있는데 지원해보시겠어요?"라고 물어보셨고, 나는 이미 한 번 떨어졌던 경험이 있기에 두 곳에 편한 마음으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두 곳 모두 서류 합격하여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광화문역 ***은 구로디지털단지역이었는데 두 곳 다 집이 상당히 멀었고 당일에 둘 다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하였다. 첫 번째로 연합뉴스에 면접을 보러왔다. 나를 포함한 4명이 들어갔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떨지 않고 하고 싶던 말을 편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불을 생각이 없기도 하였고 그런 면접경험을 쌓을 생각으로 보러왔었기에 편했다. 연합뉴스 면접을 마치고 구로로 가던 중 에이전트님이 전화로 연합뉴스에 합격하였다는 말을 해주셨다. 나는 그 사실을 듣고 매우 놀라며, 새삼스레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마음가짐과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7월 27일 첫 출근 후 그다음 날인 28일은 내 첫 취재 일정이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혹들에 관하여 여성단체들이 모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의혹들을 살펴봐 달라고 직권조사를 요청하며 서울시장에서부터 약 1km 정도를 행진하는 시위였다. 다들 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보라색이 여성 인권 단체의 상징적인 색이기 때문이었다. 입사 이틀 만에 나간 첫 취재였기에 모르는 것이 많았고 SNS를 통해서만 보던 시위를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되니 무척 흥미로웠다. 해당 시위에는 내 주변에 있을 법한 어머니들과 친구들 그리고 어르신들도 다양했으며, 마이크로 요구하는 바를 말하며 파켓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은 나에게 무척 신기하였다.

연합뉴스의 조한대 기자님과 영상취재부의 영상취재기자 고아람 선배와 임정대 선배 그리고 나까지 총 4명이 함께 취재를 나갔다. 영상취재기자 선배들이 현장의 모습을 하나하나 카메라로 담아내려고 뛰어다니며 찍는 모습이 멋져 보였다. 나는 선배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자 아무것도 모르는 와중에도 어깨에는 장비가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한 손으로는 삼각대를 들고 선배들을 쫓아다녔다. 나는 '저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행진하고 마이크를 잡았을까?'라는 의문이 가득했고, 모르는 것 천지였기에 선배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선배들은 내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었고 그렇게 나의 첫 취재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일정이 마무리한 후 우리는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차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회사 영상취재 기자분들이 몰려나와 시위하시는 분들을 다시 촬영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황하고 있었는데 같이 온 영상취재기자 선배 두 분이 급하게 카메라를 꺼고 쫓아갔다. 뛰어가며 모습을 바라보지만 하는데 고아람 선배가 나에게 빨리 무슨 마이크를 잡았을까?라는 의문이 가득했고, 나도 같이 뛰어갔다. 알고 보니 우리가 밥을 먹고 나오는 사이에 여성단체의 변호사분께서 나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계셨다. 나도 급하게 뛰어가 그분께 마이크를 들어밀었고 다행히 인터뷰 내용을 카메라와 마이크에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모든 취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가 뭘 하고 왔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힘들지는 않았지만 뭘가 힘에 부치는 기분이었다.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하여 실수가 있었지만,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고 알려주신 덕분에 잘 마치고 올 수 있었다.



같이 일하는 오디오맨 선배들은 나에게 "너는 참 안 좋은 시기에 입사했다."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입사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장마와 태풍 등 국가적 재난이 끊이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입사 4일 만에 나는 대전의 코스모스 아파트의 침수 현장과 지하도로 침수피해 등등 대전에서 나타난 침수피해 지역만 네 군데를 취재 나갔고, 내 첫 출장이었다. 침수피해 현장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였다. 출장은 1박 2일이었는데 갈아입을 옷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습기 때문에 온몸이 땀에 젖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하지 못해 비로 온몸이 젖었으며, 해가 뜰 때면 옷은 햇볕에 말랐지만, 몸에서는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다. 침수피해 현장에서는 갯벌에서 나는 냄새가 났다. 나는 재난현장 취재는 처음인지라 평소보다 2배 이상 긴장하였고 실수를 연발하면서 멘탈이 흔들렸다. 내가 실수를 연발하자 같이 취재 온 선배는 나를 많이 혼내셨다. 잠은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뻘뻘한 일정 속 자꾸 실수만 하니 수십 번 '그냥 집에 갈까'라는 생각도 했었다. 침수피해 현장에 온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의 모습조차도 부정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국가적 재난 시기에 입사 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주눅이 들며, 어서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고 싶었다. 그렇지만 끝까지 취재하였고, 대전 취재를 마치고 세종시에 취재 일정이 생겨 세종에도 취재를 다녀왔다. 나를 혼냈던 선배도 수고 많았다면 다독여 주셨고, 나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사고가 터져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또 사고가 터져서 다시 취재하러 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취재 일정이었다.



대전 침수피해 취재 이후 나는 파주, 가평, 여주, 한강 등등 많은 곳을 취재 했다. 전부 침수피해 관련 취재였다. 침수피해로 인해 집이 완전히 물에 잠겨 마을회관에 침몰하게 앉아 인터뷰를 응해주신 어머님과 언제 사는 곳이 침수될지 모른다는 걱정과 항상 대피소로 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한강이 물에 잠겼던 흔적을 보면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침수피해로 힘든 시기에 태풍까지 겹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온 24년 인생 중 지금 이 한 달이 제일 많은 비가 내렸던 8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마와 태풍에 의한 비, 바람과 함께 진흙을 밟아 흙투성이가 된 바지와 신발을 보면서 지난번 '너는 좋지 않은 시기에 입사한 것 같다.'라는 선배 말이 떠올랐다. 국가적 재난 시기에도 우리는 취재와 인터뷰 및 기자와 캐스터 연결 등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어느 날은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은 후 취재를 나갔다. 맨발에 장화를 신었는데 물이 가득 차면서 발이 통통 불터니 굳은살이 전부 쓸려 발이 성하지 못하였다.

비바람을 맞으며 취재를 하는 것이 정말 고되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쁠 때만 있던 것도 아니었다. 다양한 취재를 통해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눈으로 익혀 시야가 넓어졌던 시기였던 것 같다. 또한,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입사 한지 약 한 달이 다가올 때 즈음 나는 처음으로 야간 당직을 서게 되었다. 야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출근했을 시간에 퇴근을 준비하던 오디오맨 형에게 물어보았다. "형, 야근은 뭐하면 될까요?"라고 하였다. 그러자 형은 "야근 뭐 별거 없어 대기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나가면 되는데 일 생기는 경우 거의 없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웬걸 그날 밤에만 취재 일정을 4번 나갔다. 하나만 말해보자면 동대문에 비로 인해 집이 무너진 곳에 취재하러 갔다. 첫 야근부터 무너진 집을 취재하러 간다는 사실이 황당했다. 동대문에 가서 무너진 집을 취재하던 중 옆에 계시던 경찰관분들께 물어보았더니 저 곳은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된 집이며, 그렇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너져 버렸다고 말씀하셨다. 빈집이었기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웠다. 무너진 집으로 가서 영상취재기자 선배는 촬영하고 나는 그 위에 서서 취재를 도와주었다. 취재 시간은 다행히 그리 길진 않았지만 취재가 끝나고 난 후 기분이 이상하였다. 영화에서 보거나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모습을 직접 보니 기분이 이상했고, 집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무언가 허탈한 듯 힘이 쏙 빠지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하였다. 일상적으로 내리는 비나 바람도 재난이 되어있다는 사실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았다.



일을 어느 정도 적응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난 후 장마와 태풍도 잠잠해졌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 두기는 25단계까지 올라가며 3단계로도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코로나 관련 취재로 사랑제일교회와 고양시 박예원, 서울시 코로나 브리핑 그리고 서울 내 다양한 병원과 보건소 등에 다녀왔다. 서울시 내의 다양한 병원과 보건소에 다녀왔을 때마다 느낀 점은 병원 직원이나 보건소 직원분들 지금은 날씨가 매우 선선해졌지만, 당시에는 폭염과 장마, 태풍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을 텐데 방역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다.

우리는 사랑제일교회 취재하러 갔었을 당시 내부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근처에서 뉴스 생방송 기자 연결을 하였다. 근처가 재개발 지역이라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았다. 우리는 3인 1조로 구성되어 주변 빈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생방송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방송 송출을 방해하고자 건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았었다. 그러나 우리는 신도들을 뿌리치고 건물로 들어가 방송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로 들어가자 신도들은 건물의 현관을 와이어로 묶었다. 만약 공무원들이 경찰관들이 막았다면 우리도 방송을 안 했을텐데 신도들이 우리를 막고 건물 입구까지 봉쇄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다. 개인적인 견해로 코로나는 정말 범세계적인 재난이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사태 해결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신도들의 신념은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자신들의 신념 때문에 이웃에게 칼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코로나 19사태가 진정이 되고 2020년 이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현재 입사한 지역 석 달 정도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취재를 다니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취재가 있다면 단연 집회라고 말할 수 있다. 개천절, 한글날 등의 광화문 집회와 의대협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여의도 집회 등등 다양한 집회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특히 의대협 여의도 집회 때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의사와 의대생들이 거리 두기를 신경 쓰지 않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 안타까우면서 걱정이 되었다. 무언가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현재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의사들이 파업하고 몇천 명이 모여있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최근 개천절, 한글날에 출근하여 광화문 집회 취재를 나갔다. 경찰차로 차 벽을 이루어져 있어 5분 거리를 20분간 돌아서 가야 할 정도로 통제가 되어있었다.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는 집회 참석자들은 종로구 내에서 아무 곳에서나 현수막을 들고 마이크를 들고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 내용은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코로나 시대에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였다.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국민으로서 인정해야 할 권리이며, 재난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내어 요구조건을 내거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정도가 많이 지나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대협 여의도 집회, 광화문 집회도 그럴 수는 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자제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광화문 집회 당시 한 블록마다 지나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었고 취재를 위해서 기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도 존재했었다. 소위 애국 보수라고 말하는 유튜브들이 많았다. 한번은 취재를 위해 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나가는데 정치 관련 유튜브들 수십 명이 몰려와 "나도 기자예요!"라며 길을 막아버려서 겨우 뚫고 지나가기도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치 관련 이슈는 크게 관심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우는 것은 좋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경험이었다.

지난 1~2달간 태풍과 장마, 코로나 등 약간의 무거운 주제의 취재 비중이 크기는 했지만 좋은 취지의 취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추석을 맞이해서 독거노인 분들께 음식을 전달하는 봉사활동과 코로나로 인해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정부 입장으로 고향 방문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어르신들의 영상편지를 취재했다. 취재하면서 마음 한편이 아팠고, 충남에 계시 할머니가 떠올랐다.

그리고 한글날을 맞이하여 경복궁에서 외국인 세종어학당을 다니는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취재 나갔다.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있었다.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이 존경스러우면서 신기했다. 우리는 그중 이스라엘에서 온 Gabriel rejoice morgan이라는 학생을 인터뷰하였다. 나는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과 사는 곳을 조사하는데 해당 학생의 영어 발음이 내가 알아듣기가 조금 힘들었다. 나는 정직한 발음으로 '가브리엘 리조스 모건이요?'라고 묻고 그 학생은 Gabriel rejoice morgan이라며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답해주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서울대생이라고 했다. 그 사실을 듣고 조금 놀랐다. 다른 나라에 와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취재하다 보면 날씨 연결 즉, 기상캐스터의 생방송 날씨도 취재를 나간다. 연합뉴스는 날씨 연결을 청계천, 광화문 등을 위주로 하고 그 외에도 북한산 등 다른 곳을 가기도 한다. 취재하며 느꼈지만 날씨 연결은 쉬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날씨 연결을 위해 원고를 뽑아 외우는 기상캐스터 분들의 노력과 기상캐스터 분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하고 수고가 많다고 생각했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팀 vs 올림픽대표팀 훈련 취재하러 갔었다.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무척 기뻐했다. 우리 취재를 위해 파주 NFC로 갔다. 그곳에서 국가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과 조현우 선수, 이정협 선수 그리고 올림픽대표팀의 김학범 감독, 오세훈 선수, 조규성 선수를 인터뷰하였다. 훈련장면은 20분간 공개하였고, 우리 그 20분간 취재했다. 인터뷰하며 느꼈지만, 확실히 김학범 감독께서는 인터뷰가 시원시원했다. 조현우, 이정협, 오세훈, 조규성 선수 모두 정말 키가 크고 허벅지가 무척 두꺼웠다. 특히 조현우 선수는 다른 축구 선수들보다 파파가 무척 하얗다. 축구 선수들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인터뷰하니 새삼 기분이 좋았고, 좋아하는 축구 선수들의 훈련장면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게 되어 무척 설렜다. 축구 훈련만 취재하러 간 것이라 축구경기는 보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취재하고 온 것을 아버지께 자랑도 할 정도로 내게는 최근 들어 가장 좋았던 취재가 아니었을까 싶었다.

연합뉴스가 아무래도 보도 채널이다 보니 국가적 이슈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포츠나 다른 이슈 취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 취재로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취재하러 가게 되어 흥미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끝으로 나는 이제 연합뉴스TV에 영상취재부 오디오맨으로 근무한 지 이제 약 3달 정도 되어간다. 1년 계약직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현재는 예전보다 실수가 많이 줄었고, 어느 정도 적응도 성공한 것 같다. 또한, 같이 일하는 오디오맨 선배들이 잘 챙겨 주시기에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없었다. 연합뉴스는 보도 채널이기에 정치, 코로나, 재난 등등 여러 주제에 취재를 많이 나가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경우도 많다. 하지만 편할 때는 편하고 바쁠 때는 바쁜 것은 어느 회사를 가게 되더라도 같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내가 이쪽 업종으로 계속 발전을 해나갈지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은 없지만 '내가 연합뉴스에서 1년간 일을 하고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쯤 나의 시야는 지금보다 몇 배는 넓어졌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만일 후배 중 영상 관련 카메라 관련 기자에 대해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영상취재부의 오디오맨을 추천해주고 싶다. 영상취재기자 선배분들의 경험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전국 팔도를 카메라로 담아내어 뉴스를 만들어내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시야와 눈높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1년간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인생의 큰 자산을 얻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나 다른 회사를 가게 되었을 때, 무언가 다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지금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다.

(* 본 글을 작성하면서 저는 아무런 정치적 사상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편애하고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약간의 개인적인 의견만 있을 뿐 개인적인 정치사상을 존중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요즘 사람들이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손에서 놓지 않는 물건이 있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꽤 오래 전 발명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IT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던 때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곤 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IT 산업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IT 강국으로의 도약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류의 스마트폰이 보급되었고, 스마트폰 관련 분야 산업도 크게 발전했다. 언제 어디서나 거의 모든 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스마트폰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으며,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은 더 나은 기능과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마냥 편리해 보이는 스마트폰에도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중 큰 문제는 ‘스마트폰 중독’이다.

중독이란 ‘특정한 기호, 습관 또는 행동에 빠지거나 자신을 내맡기는 상태’라고 학문적으로 정의한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오래 사용함으로써 과다한 사용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일상생활, 학업 등에서 심각한 지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인터넷 사용의 장소적 장해를 극복한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의 중독적 이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은 첫 번째, 교통사고 등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실제 사고

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다.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보느라 위험한 순간을 피하지 못하고, 신호등을 보지 않고 길을 건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면을 방해하고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에 노출이 되고 피로감이 쌓이면서 나중에 다른 안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져 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목을 구부린 자세로 장기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목과 어깨가 굽는 건 물론, 허리까지 영향을 미쳐 거북목,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네 번째, 스마트폰의 중독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 대인관계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다섯 번째, 성인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최근 만 3세 이하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만 3세 이하 아이들의 뇌는 한참 발달 중인 상황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좌뇌보다 우뇌가 더 발달하는 뇌 발달 불균형 문제가 초래할 수 있으며, 집중력 장애, 틱 장애, 충동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의 기준으로 10가지 항목이 있다. 1.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진다. 3.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조건 많이 한다. 4.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5. 수많은 어플을 깔아 놓고 모두 사용한다. 6. 스마트폰 분실 시 친

한 친구가 사라진 느낌이다. 7. 스마트폰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8. 스마트폰이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한다. 9. 아무런 이유 없이 무의식적으로 본다. 10. 하루에 2시간 이상 쉬지 않고 본다.

이 항목에서 3개 이하가 해당된다면 스마트폰 중독에 이상이 없고, 4~7개의 항목에 해당되면 초기증상, 8개 이상의 항목이 해당된다면 스마트폰에 중독 가능성에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러한 스마트폰 이용 관련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겪는 과의존 중독을 해소 방안으로는 ‘대체 여가 활동’, ‘과다 사용에 대한 경고문 제시’,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교육’ 등이 있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가 힘들면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만들어 자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배드민턴, 야구, 축구 같은 운동이면 더욱 좋고, 독서나 유익한 영화 감상 등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을 방지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스마트폰 중독방지 앱은 잠금이 설정된 시간 동안 꼭 필요한 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이 모두 차단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목표 문구도 기록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러한 해결 방안을 잘 이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에서 헤어 나오고 스마트폰을 긍정적으로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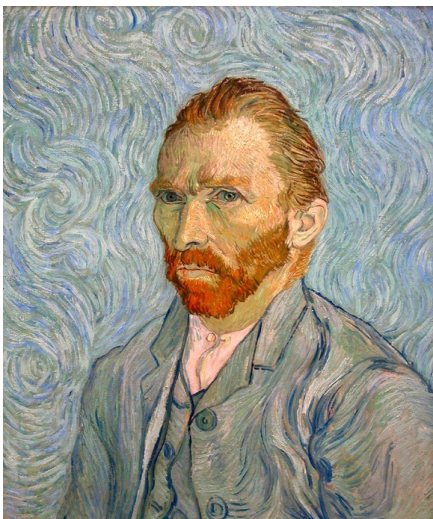
정기자 최민혁

미술 속 인물(2)

강태성 예술학 박사

미술가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덧없는 인간의 존재를 영구히 포착하려 하거나,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인간과 초월적인 인간을 탐구하였다. 또 기독교 미술에서는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리려고 했었다. 미술가들은 이러한 주제를 표현할 때, 조화와 균형의 조형으로 접근하거나 이에 파격을 주는 조형으로 다가가기도 하였다. 특히, 비 조화적인 조형성은 현대에 들어 더 많이 등장한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미술가들은 사실적으로 인간을 재현하는 것을 멈추며, 인간의 육체적이거나 감성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는 인간의 육체를 아름다움으로 보기보다 열정적이거나 주관적인 생각, 상상력으로 표현하였다. 그런 예술가 중 빈센트 반 고흐를 먼저 생각해 본다. 고흐는 파리로 먼저 이주한 동생을 따라 그곳에 온다. 그는 동생의 도움으로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화가들을 만나며, 새로운 색채로 이뤄진 미술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고흐는 색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틀르로 옮기면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색채로 형태들을 그려 나가기 시작한다.



▲ Van Gogh, 자화상, 1889

<https://history.info/society/culture/1853-van-gogh-worked-christian-preacher/>

고흐는 이 작품에서 배경을 일렁이는 원들을 반복적으로 그려 자신의 시각적인 환각이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심리 상태를 그려낸다. 그는 사진이 포착하는 것보다 더 깊게 자신을 그린다고 이야기했었다. 이 작품은 그가 즐겨 입던 피재킷(피코트)을 입지 않고, 일반 양복을 입었다. 피재킷은 두껍고 거친 옷으로 네덜란드 해군복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어쨌든 그가 이 옷을 즐겨 입었으나 그렇게 그리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일상적인 자신을 보여주기보다는 무엇인가에 대한 단호한 생각과 결단이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그림 속에 그의 눈은 강렬하게 무엇인가를 열망하는 모습이다. 그의 경직된 모습은 자기 생각과 다른 것들과 타협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다. 다소 굳은 자세는 배경의 소용돌이의 움직임과 대

조를 이룬다. 이 형태적인 대조처럼 터키 푸른 색조와 압센트 색조의 초록색은 그의 주황색의 수염과 대조를 이룬다. 소용돌이치는 단순한 소용돌이가 아니라 환각적인 요소를 강화시켜, 보는 우리도 그와 같은 환각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특히, 심리적으로는 심한 스트레스, 걱정 근심, 자신을 통제하기 힘들 때 느끼는 형태로 소용돌이 모양이었다. 또 혼자 노는 습성, 잃어버릴까 근심하는 성격, 두려움 등을 표현한다. 이러한 점은 고흐의 내재된 성격과 억눌린 감정을 표현한다. 이외에도, 밀밭 그림, 별이 빛나는 밤 등 많은 작품에서도 소용돌이치는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무엇인가에 홀리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현대의 인간들은 19세기 말에 객관적인 세계를 보려는 것에서 벗어나 극심한 심리적인 불안과 억압을 표현한다. 인간의 표현은 객관의 세계에 억압받는 것을 거부하며, 그 속에서 자기 멋대로 자신의 감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인 색채를 강화한다. <걱정> 1894년의 작품에서 좀비같이 변한 인간들의 행렬에서 현대 도시인들이 갖는 개인의 의지가 박탈된 모습처럼 극도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 속에 억눌려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한 인간적인 상황은 더 나아가 울동과 감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몽크의 작품에서도 소용돌이치는 역동적인 모습들이 등장하며, 더 나아가 액체적인 유동성, 흔들리는 형태들로 보인다. 이때 액체적인 형태는 추상 표현주의에서 더 발전하게 된다.



▲ William de Kooning, the visit, 1524×1219mm, 1966~67

<https://www.tate.org.uk/art/artworks/kooning-the-visit-t01108>

윌리엄 데 쿠닝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작가 중, 여인들을 많이 그린 작가이다. 그의 붓 터치는 매우 격렬하여 표현적인 행위를 흔적으로 남긴다. 그의 회화는 추상표현주의 작가 중 그래도 많이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인물을 격렬한 붓 끝에 휘몰아치거나 파괴된 형상 등으로 그려서, 인간의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발은 매우 넓게 벌리고, 오른쪽 윗부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형태가 보인다. 그것이 얼굴이라면 그녀를 관찰하는 타인의 얼굴

일 수도 있고, 넓게 펼친 그녀의 손일 수도 있다. 물감들이 액체처럼, 떨어지는데, 이는 고기의 피를 잘 그렸던 작가 수틴의 화법을 생각나게 한다. 두터운 색 면들 위에 물감을 묽게 섞어 푹푹 떨어지는 액체들이 갖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인간들은 무엇인가 모를 공격적인 의미들로 다가온다.

이와 다르게 피카소의 경우, 인간의 모습에서 새로운 측면을 접근한다. 피카소는 모델들이 갖는 개인들의 독특한 개성에 집중한다. 피카소가 사랑한 마리 테레즈 윌터의 경우,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동그란 형태들로 제시한다. 원형으로 그려진 그의 몸은 더욱 여성성을 보여준다.



▲ Pablo Picasso, 꿈, 1932

<http://goodappleart.com/tag/pablo-picasso>

파란색, 노랑과 빨강의 아름다움은 뒤 평면의 밤색과 더 잘 어울리게 그려낸다. 여기서 입체파의 다양한 시각에서 사물을 보려는 분석적인 방법은 거의 다 사라지고, 대상을 구성하는 색면으로 부각된다. 얼굴은 입체파의 얼굴 왼쪽과 오른쪽이기도 하지만, 여인 옆에 있는 남성으로 삶의 예로 탁한 의미들을 충만하게 제시한다. 인간은 삶에서 주어진 여러 부분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감추고 위장 시키고 있다.

르네 마그리프의 인물은 이들과는 다르게 환상의 공간으로 다가온다. 그는 인물들 속에서도 인물 자체에 초점을 잡기보다, 개인이 아닌 '인간'에 관한 환상적인 의미들에 주목한다. 마그리프의 한 작품에서는 얼굴 대신 여인의 몸이 들어가 있다. 이 작품은 일

종의 콜라주이다. 진짜 종이를 붙인 콜라주는 아니지만, 두 가지 다른 정황(여인의 몸과 얼굴)을 붙인 듯 그려내어 콜라주의 의미를 강조한다. 두 눈은 가슴 등으로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으면 대치하는 은유적인 콜라주이다.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인간들이 갖는 여성에 대한 폭력성, 현대인이 사람에게 갖는 공격성을 표현한다.

살바도르 달리의 <Spellbound>는 많은 눈들이 모여 있어, 인체의 원의 의미를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는다. 이때의 원은 눈이면서도 본다, 감시한다 등의 의미들을 제시한다. 이 작품은 알프레드 히치코크(히치콕) 감독의 <Spellbound>(1945)의 배경에서 사용되었다. 영화 속 에드워드 박사(그레고리 펍)의 무의 의식을 분석하는데, 거대한 눈과 괴상한 카드게임, 가위 등 꿈속에서 등장하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에즈워드 박사는 실제 에즈워드가 아니고, 존 발렌타인이 본명인 그가 기억상실에 걸린 것을 여자 의사인 콘스탄스(잉그리드 버그만)가 알게 된다. 콘스탄스는 에즈워드를 데리고 자신의 스승에게 찾아가 최면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한다. 이때 눈은 자신을 지켜보는 많은 눈이자 증인이며, 자신을 지켜보는 내적이고 심리적인 억압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는 다른 작품에서도 인체에서 원을 이용할 때는 해골, 영들을 그린다. 이 작품도 환상적인 측면을 그려, 비이상적인 측면으로 다가온다. 즉 초현실적인 인간의 인식이나 인간의 또 다른 현실, 숨겨진 진리로 다가오게 한다. 이렇게 인간은 인간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감성과 환상의 영역을 개척한다.

인간은 현대로 들어오면서,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즉, 신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간의 모습을 찾아 나섰지만 극심한 고통과 번뇌에 빠져드는 조형작품을 창작하게 되었고, 그것을 보며 사람들은 육체와 결부된 감정적인 쾌락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인간은 감정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을 그렸다. 설사, 그것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결국, 육체와 감정과 연결된 무의식과 환상의 세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는 실제 자유와 진리의 세계로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이었다. 이러한 미술가들이 다루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그 속에 심리적, 육체적 아름다움이나 쾌락은 있지만, 진리의 아름다움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인간의 비극을 발견한다.



▲ Salvador Dalí, Spellbound(부분), 1945.

<https://i.pinimg.com/originals/8f/36/32/8f36326f5e47ecf18aa1e21891a3ea8c.jpg>



초고속인터넷 6년 연속 1위
IPTV 2년 연속 1위

두근 두근~
두근 두근~ 기대 기대~
두근 두근~ 기대 기대~
두근 두근~ 기대 기대~

두근 두근~
두근 두근~ 기대 기대~

두근 두근~ 기대 기대~ Lovely B tv

더 새로워진 B tv를 만나보세요!

풍부해진 영화 월정액 상품으로, 영화/해외 드라마를 마음껏 자유롭게!

연령별로 다양한 프리미엄 교육 콘텐츠로 아이들은 똑똑하게!

고객 중심의 메뉴 구조와 디자인으로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더 크고 편리해진 화면으로 어르신은 편안하게!

모바일 B tv 앱으로 거실 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가입문의 ☎106 | www.skbbroadband.com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영신교회 이진형 목사

지난 7월 30일 유튜브 채널 ‘비긴어게인’에서 ‘비긴어게인 코리아’ 풀버전이 공개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수가 나와 버스킹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개된 내용 중에서 화제가 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날 등장한 모든 가수는 함께 공연 마지막 곡으로 그룹 지오디의 ‘길’을 노래 하였습니다. 가수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을 돌아가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수 크러쉬가 자신이 불러야 할 부분을 부르 지 않고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은 채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던 겁니다. 노래가 끝난 후에 다른 동료 가수가 크러쉬에게 왜 노래를 부르 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크러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감싸며 울고 있는 그를 보면서 다른 동료들과 관객들도 같이 눈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러쉬는 어린아이처럼 펄펄 울다가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멤버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크러쉬는 자신이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거기에 혼자만 있는 느낌이였다.”라고 입을 연 그는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다. 가사처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가 하는 질문을 처음 했다.”라며 답답하게 눈물의 의미를 고백했습니다. 가수로서 유명해지고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이날 노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건

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노래 ‘길’의 가사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 그곳은 어딘지 /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디로 향해 있는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말고 빨리 가라’는 말을 하지만 이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다른 길은 없는지, 왜 꼭 남들보다 먼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부모님들도 처음 걸어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젊은 청년 크러쉬가 이 노래의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경험을 한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듣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이런 고민을 누구나 다 해 봐야 합니다.

스프링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스프링백은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인데 사슴과 양을 섞어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무리지어 사는 스프링백은 가

끔 절벽에서 집단 자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작은 무리일 때는 아주 평화롭다가 점점 큰 무리를 이루게 되면서 풀을 먼저 뜯기 위해 한두 마리가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스프링백들은 이유도 모른 채 놀라서 같이 뛰게 됩니다. 결국에는 같이 있던 스프링백들이 해안 절벽에 다다라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절벽 아래로 함께 떨어져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처럼 살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스프링백에 빗대어 얘기하고는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길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 되는 것일까요? 남들이 가는 길을 함께 가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가는 길이어도 소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을까요?

가수 윤종신이 만든 ‘지친 하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자신의 소중한 꿈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노래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흔들리고 고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 누가 그대 옳은 길이라 /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주변의 있는 많은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저마다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얘기해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고 흔들립니다.

‘남들이 하는 일을 나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것일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보장이 어려워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삼고 잘할 수 있는 안정된 일을 합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면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겠지만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라는 말을 우리의 진로나 꿈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대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로와 꿈에 대한 내용은 ‘What’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What’에 대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How’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 ‘길’에 대한 더 본질적인 물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Why’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위의 노래처럼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까요? 진로에 관한 ‘What’의 물음에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ow’와 ‘Why’에 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에 예능계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은 아마 ‘가짜 사나이 2’일 것입니다. 14명의 일반인 출연자가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에피소드는 생각보다 더 가혹하고 혹독한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가자 가운데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고, 교관들보다 나이가 많은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버텨내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들을 만들고 참가자들을 몰아붙이는 교관들의 모습 때문에 최근에는 ‘가혹행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그 일을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관들의 입장에서는 ‘극한의 상황, 멘탈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을 출연자들이 훈련생으로서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마다 참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이겨내고 싶어서, 어떤 이는 지금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참가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 훈련에 참가하는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을수록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교관들도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 중간에 포기하려는 훈련생들에게 끊임없이 ‘이 훈련에 왜 참가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왔는가?’ 하는 것을 계속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 ‘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분명할수록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년이 당황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바쁘게 가던 길을 멈춰선 지금, 오히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정하는 길도 있지만, 내가 가야 하는 길도 있습니다. 또, 옳은 길과 그렇지 않은 길도 있습니다. 빠르게 정답을 검색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여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비대면강의의 올바른 실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한적한 변화가, 발열 측정소, 출입 명부,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우리는 이 시대에 맞춰 많은 것들이 바뀌어 가고 있고, 학교는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였다.

비대면 강의에는 각 교수님들의 재량에 따라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튜브 라이브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양과 유기연 교수님을 찾아뵈어 짧은 Q&A 시간을 갖게 되었다.

임재희 - 유튜브 라이브로 강의를 진행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유기연 교수 - 비대면 강의가 진행될 때 수업 세팅은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면강의보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들이 소통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강의 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여 동영상상을 업로드 하게 되면 학생들과 소통은 단절이 됩니다. 학생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게시판을 이용한다든지, 카카오톡 단체방을 이용하는 그런 또 다른 수단을 통해서 나에게 의사를 전달을 할 텐데 그것을 일일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가 강의를 할 때 비대면으로도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에 강의를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답변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마찬가지로 내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톨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답은 유튜브 실시간 강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재희 -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의 큰 차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기연 교수 - 대면강의의 장점은 교수와 제자가 직접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며 배운다는 것이 최고 장점이지요. 단점은 한번 강의가 진행되었을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 잠깐이라도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일부 강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효과적인 면에서 강의 결과를 100퍼센트 중 60~70퍼센트 정도만 가져간다는 것이 대면 강의의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에서의 장단점은 대면 강의의 장단점과 뒤바뀌게 되죠. 영상강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영상을 돌려보면 되기 때문에 학습 효과적 인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강의에서의 단점은 소통이죠.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의 감정을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교수가 짊어져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재희 - 강의 중 학생들과의 소통이 많이 중요한가요?

유기연 교수 - 특히 비대면의 경우에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최소한이라도 소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영상이라던가, 간단하게 무엇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영상만 보고 거기에 대해 그냥 시키는 대로 과제를 한다거나 문제를 풀다거나 하면 학생들은 오로지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교수님과 따뜻한 마음의 교감. 정서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 교수님의 강의에 더욱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업에 임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재희 -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유기연 교수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들의 성실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비대면이다 보니 자기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생이 한 학기에 적어도 6~7개 과목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본인이 게을러서 당일 영상을 시청하지 않게 된다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봐야 하는 영상은 산더미처럼 계속 쌓여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만 지나도 영상 시청을 포기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은 시간표대로 매일 봐야 할 영상들을 미루지 말고 바로 시청을 하는 것이 비대면 강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와 같은 교수님과의 Q&A 시간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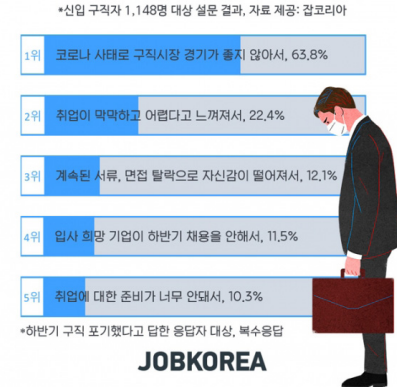
인터뷰 당시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이 되어 몇몇 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목들이 대면으로 전향이 되었다. 지금까지 해온 비대면 강의와 마찬가지로 많은 학우들이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습기자 임재희

집에서 준비하는 대학생 취업을 위한 스펙 UP

2020년 전 세계에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 19는 세계 경제 위축을 일으키며 우리나라 취업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 이는 구직자들의 취업 활동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신입 구직자 1,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중 15.2%는 2020년 하반기 구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 구직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구직시장 경기가 좋지 않아서’라고 63.8%가 답변했으며, ‘취업이 막막하고 어렵다고 느껴져서’ (22.4%), ‘계속된 서류, 면접 탈락으로 자신감이 떨어져서’ (12.1%) 등을 구직 포기의 이유로 꼽았다.

하반기 구직 포기 이유 top5



[제공=잡코리아]

취업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축된 것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5.5%는 올해 대졸 취업 환경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했으며, 이는 동일 조사 결과인 46.1%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10월 4일 한국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생 예상 취업률은 45.5%이며 나머지 55.5%는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이처럼 취업 시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채용 기회 감소에

따른 입사 경쟁 심화, 인턴 등 실무경험 기회 축소, 경제적 부담, 심리적 위축 등이 원인이다.

< 2019년 대졸 취업환경 체감도 >



< 2020년 대졸 취업환경 체감도 >



[제공=한국경제연구원]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혼란스러운 구직시장 속에서도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대학을 포함한 상당수의 대학이 전면 비대면 수업, 혹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면서 등하교로 소모되는 시간 감소, PC·스마트폰·태블릿을 이용한 강의 수강 등으로 인하여 시공간적 제약이 줄어들고, 구직 준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 대

학생들이 구직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외부에 나가지 않고도 자격증 취득, 입사지원서 작성, 면접 시뮬레이션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떤 게 있을까?

[한국능률교육평가원 강의 수강]

한국능률교육평가원에서는 취업 자격 조건 강화를 돕는 42가지 온라인강의를 재직자 및 근로자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한국능률교육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만 하면 각종 자격증 및 취업 관련 강의를 최대 3개 과정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다. 해당 강의들은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강의와 교재, 시험 예상 문제 등을 제한 없이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들도 수업과 병행하며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기 용이하다.

[GAIQ 구글애널리틱스 자격증 취득]

구글 애널리틱스란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로그 분석 도구이다. 이를 활용하면 웹사이트에 유입된 방문자들의 상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본래 마케팅을 위한 톨이자 플랫폼이지만, 사용자에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분석 및 활용하는 것을 돕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신의 직무 직종과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반드시 요구된다.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의 경우 구글에서 무료·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며, 자격증 시험 또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무제한으로 응시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준비하기 매우 적합하고 유용한 자격증이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

우리나라 여러 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면접과 채용 등 갑작스러운 구직시장의 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운 구직자들을 위해 다양

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여러 기업 중 SK 이노베이션은 8월 말부터 한 달간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이노 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사에서 직무별로 선발한 50명의 멘토와 대학생 멘티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해당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얻기 힘든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및 취업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실무자들의 조언을 들을 기회를 제공했다. 많은 기업에서 이와 같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므로 자신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 검색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취업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신안산 대학교 취업 상담실 이용]

우리 신안산대학교 취창업 지원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위해 진로 및 취업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 및 취업 상담실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 탐색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 설계 및 목표를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 상담실은 도서관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신안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생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한 진로 상담 예약,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1:1 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진로 및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및 일자리 알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진로 확립,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요령 터득 및 취업을 위한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으며 취업을 위한 방향성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대학생들이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스펙업은 무수히 많다.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이 시기에 여영부영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며,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하길 바란다.

정기자 이현진



글·그림 김나예



제 116호 학보를 읽고 다음 십자말풀이 문제를 풀어보시오.

빈칸을 채운 뒤 학과, 학번, 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한 후 학보사실(목양관 2층)에 12월 30일까지 제출하시면
정답을 모두 맞춘 분들에 한해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 기프트콘 등의 상품을 지급해드립니다.
기입하신 개인 정보는 추첨이 끝난 뒤 모두 폐기되며, 상품은 1월 중에 추첨 및 지급될 예정입니다.

| | | | | | | | |
|---|---|--|---|--|---|--|---|
| ① | 가 | | | | | | 다 |
| | | | | | | | |
| | | | | | 나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가로문제

- ① 우리 신안산 대학교 취창업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재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위해 진로 및 취업 상담을 진행하는 곳.
- ② 모래땅, 거친 바람에도 잘 견디며 특히 바다의 염분에 강하고 웬만한 추위나 건조나 대기오염에도 끄떡없으며,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해 가지를 뻗는 것.
- ③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로그 분석 도구로, 사용자에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분석 및 활용하는 것을 돕는 기능이 있음.

▶세로문제

- ㉗ 리사이클링의 상위 개념으로,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을 단순 재활용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디자인 또는 활용도 등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한다는 의미.
- ㉘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자가 격리와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증폭되어 불안장애로까지 발달한 경우를 의미하는 합성어.
- ㉙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보장 제도.

| | |
|------|--------|
| 학과 : | 학번 : |
| 이름 : | 전화번호 : |

때론 ‘싫어요’가 더 ‘좋아요’

예썸교회 황대석 목사

몇 해 전 지하철을 이용해서 어디론가 가면서 겪었던 일이다. 마침 인파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아니어서 빈자리도 있었던 터라 몸도 마음도 편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지고 놀지, 책을 읽을지, 아니면 잠을 잘지를 고민하던 바로 그때 지금도 잊히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한 분이 다른 칸에서 내가 있는 칸으로 건너오시더니, 다짜고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가리키면서 한 마디씩 말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조금씩 점점 더 내가 앉은 자리로 다가오셨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분이 내뱉는 한 마디 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넌 오늘 재수 있어!”, “넌 오늘 재수 없어!”

그렇다. 그분은 무작정 한 사람씩 가리키면서 “넌 오늘 재수 있어!”, 바로 다음 사람에게는 “넌 오늘 재수 없어!”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칸 저 칸을 돌아다니고 계셨다. 분명 그분의 이러한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그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목사인 내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나? 참 부끄럽지만 그때 나는 계산하고 있었다. 과연 나는 저 사람에게 재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될까, 재수가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될까를 말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분께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 봐 그분이 내 앞에 서서 내게 말하기 전에 얼른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분은 분명 나와 관계가 있는 분도 아니었고, 정상보다는 비정상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분이 나에게 재수 있다고 말해도 나는 재수 없을 수 있고, 그분이 재수 없다고 말해도 나는 재수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 혹시라도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될까 봐 그랬다.

참 부끄러웠다. 좋은 말, 칭찬 듣는 것은 참 좋아하면서, 안 좋은 얘기 듣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는 내 모습을 또다시 확인한 것도 기분 별로였지만, 목사가 그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따뜻한 시선 한 번 보내주지는 못할망정, 혹시라도 안 좋은 소리 듣게 될까 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솔직히 우리는 너무 좋은 말만 들으며 살기를 원한다. 누군가가 내게 꼭 필요한 말이라 하더라도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실과 다른 말이라 하더라도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고 그런 사람과 훨씬 더 가깝게 지낸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여러 왕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나라를 더 어지럽게 했다. 대표적으로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그러했다. 우리에게는 삼천궁녀로 유명한 의자왕이지만, 실제로 삼천궁녀씩이나 유지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치와 향락에 빠진 왕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의자왕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에게 충언을 했던 신하가 있다. 바로 ‘성충’이라는 이름의 신하로, 왕의 주색을 비난했다가 투옥된 인물이다. 의자왕은 성충의 직언을 듣고 싶지 않아 그를 불충죄로 감옥에 가두었고, 그런 성충을 옹호하던 ‘홍수’ 마저 귀양을 보내버렸다. ‘성충’과 ‘홍수’,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익히 잘 아는 ‘계백’ 까지 총 세 사람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삼충사’라는 사당도 있을 정도로 대단한 충신들이었지만, 그런 충신들의 듣기 싫은 충언보다는 간신들의 달콤한 간언을 더 가까이했던 의자왕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하게 했다.

요즘 수많은 유튜브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튜브들이 영상 도중에 꼭 하는 멘트가 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한다는 멘트이다. ‘구독’과 ‘좋아요’, 둘 다 유튜브의 명성과 수익에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다.

코로나 대응지침의 강화로 인해 지난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수도권의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만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다. 교회를 개척한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던 때라, 우리 교회에는 비대면 예배를 위한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 부랴부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주일이 되기 전에 먼저 설교 영상을 녹화 및 편집해서 주일예배 시간에 맞춰 성도님들께 전달했다. 교회 개척 이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려 했던 나의 계획과는 다르게, 코로나로 인해 우리 예썸 교회는 급속도로 많은 것을 갖춰나가고 세워지게 되었다. 코로나 자체는 너무 싫지만,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좋아지고 발전된 부분도 분명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달 가까이 매주 설교 영상을 올리면서 유독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유튜브의 ‘싫어요’ 기능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셨지만, 매 설교 영상마다 꼭 하나씩 ‘싫어요’가 체크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솔직히 매 영상마다 체크되어 있는 그 ‘싫어요’ 하나가 참 속상했다.

어떤 날은 영상을 업로드하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싫어요’가 체크되는 경우도 봤다. 설교를 듣지도 않고 바로 ‘싫어요’를 누르는 분이 계셨던 것이다. 뭐, 그것 또한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한 소중한 관심하기에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그때 나는 왜 수많은 유튜브들이 영상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는지 확실히 깨달았다. ‘싫어요’가 싫기 때문이다. ‘싫어요’가 그토록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기운을 떨어트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악한 왕 중의 하나였던 ‘아합’ 결

에도 선한 선지자는 있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미가야’ 역시 선한 선지자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문제는 선한 선지자가 왕에게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 기분 상하게 하는 소리, ‘싫어요’를 말할 때가 훨씬 더 많았다.

오죽 싫은 소리를 많이 했으면 미가야는 왕에게 좀 좋게 말해달라는 청탁까지 받게 된다. 역대하 18장 12절 말씀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어쩌면 아합 왕은 참 선지자 미가야에게 ‘구독(추종자)’과 ‘좋아요(칭찬)’를 요청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끝까지 ‘싫어요’를 고집한 참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도 버림받고, 당시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얼핏 보면 미가야가 불쌍해 보이지만, 역대하 18장이 끝나기도 전에 전쟁에서 죽어버린 아합 왕의 모습이 실은 더 안타깝다. 참 선지자 미가야의 ‘싫어요’를 잘 받아들였다면 그는 그렇게 전쟁에서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좀 더 나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이 글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읽어 줄지는 모르겠으나, 이 글을 읽는 모든 그대들이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을 향한 싫은 말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더욱더 권면한다. 상대방을 향하여 ‘좋아요’를 맘껏 외치면서도, 나를 향한 ‘싫어요’ 또한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좀 덜 상처받고, 그래야 좀 덜 피곤하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만 받아들이고, ‘싫어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제목의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책 내용 자체는 너무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 책 제목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래는 춤추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래는 자유롭게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동물이다. 그런 고래에게 칭찬하고, 먹이 주고, 억지로 훈련 시켜서 춤추게 하고 재주 부리게 하면, 그게 고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칭찬받아서 춤을 잘 출 수 있게 된 고래가 과연 행복할까? 오히려 그 칭찬 때문에 고래는 더 병들어가고 더 불행할 것이 분명하다.

부디 ‘좋아요’와 칭찬에 너무 얽매느라 불행해지지 않기를... 부디 ‘싫어요’와 비난에 상처받기보다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그대들이 되기를 응원한다.



所有老人都是前輩

호텔외식경영과 노홍금 교수

모든 노인은 선배다

번역 이소희

사람들은 노인들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른다. 나도 평소엔 그렇게 부르지만 아닐 때도 있다. 노인 대상 봉사를 할 때다. 그동안 아들을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몇 개 노인 복지관을 다니며 많은 노인을 만났다. 첫 만남에서 내가 항상 꺼내는 첫마디는 이것이다.

“오늘은 제가 아버님, 어머님이 아닌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눈이 일제히 동그래진다. 뭐라고 부르려고 저러나.

“저는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평생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생소해하신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분들은 반가워하신다. 생소해하시는 분들이나 반가워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선배님이라고 부르니 어색해하신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호칭이 맞다. 나는 그분들의 자식도, 사위도 아니니까. 그분들도 내심 흐뭇해하신다.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쓰게 된 이유가 있다. 그동안 만났던 많은 사람 중에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청소년은 많았지만, 늙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무언가 불안한 마음에 얼른 나이가 더 들면 좋겠다는 젊은이는 있었지만, 빨리 노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혹은 어르신이라는 호칭은 어느 모로 보나 늙음이 강조되는 말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대신할 호칭을 찾다가 떠올린 것이 선배님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모든 분들이 그 호칭을 반기셨다. 학창 시절로,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니었던 처녀 총각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고 하셨다. 호칭만 바꿨을 뿐인데 그분들 마음이 젊어졌다. 눈가의 깊은 주름이 펴질 정도로 활짝 웃으셨고, 검버섯이 희미해질 정도로 낮빛도 환해지셨다. 덕분에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함께 웃었고, 나는 계속 “선배님, 선배님” 했다.

사실 어린 나도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고 아픈 날이 많았는데, 나보다 거의 두 배의 세월을 살아 오신 그분들은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절로 존경심이 든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나보다 갑절은 넘는 고통을 견디고 버티신 그분들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긴긴 세월 거친 인생길을 걸으며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하셨을 테다. 어느 날은 소중한 것을 뺏기기도 하고, 어느 날은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하셨을 테다. 그때마다 훌쩍 털고 다시 일어나 중심을 잡으신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본인을 대단찮게 생각하셨다. 갖은 고생을 하며 힘들게 여기까지 온 자기 인생을 대견스러워하지 않으셨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라며 쑥스러워하셨다. 왜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씀하실까? 어쩌면 정말로 자기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느라 바빠서 자기 인생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생각할 기회가 여태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보라고 권유한 사람도 없었을 테고.

물론 나도 그동안 살아오며 쌓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분들에 비하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인간은 살면서 나이만 먹는 게 아니다. 경험을 먹는다. 나이는 늙음의 정도뿐 아니라 경험의 양을 알려준다. 경험치의 지표다. 그리고 그 경험 중에 아프고 힘든 경험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배님들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잠깐 먼 곳을 바라보신다.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태풍을 만났는지, 몇 번이나 천둥과 날벼락을 맞았는지 떠올려보는 것처럼. 입술을 꼭 깨물거나 눈을 꼭 감는 분들도 있다.

나는 봉사를 계기로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있을까? 그런 면에서 나는 참 운이 좋다. 선배님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그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더 이상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다.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노인 공경은 도의이자 상식이었다.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자식들을 낳고 길렀으니 노인은 그에 마땅한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노인은 공경의 대상은커녕 존재 자체가 희미해졌다. 명절이면 자식들은 해외로 떠나고, 손주들은 학원이나 도서관 다니느라 바쁘다. 그래도 노인들은 기다린다. 행여나 연락이 올까 하고.

매달 말에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용돈으로 그분들은 자식이 살아 있다는 걸, 자식이 살 만하다는 걸 확인하며 안도한다. 그 돈을 함부로 쓰지도 못한다. 사실 그분들은 돈이 아니라 자식들과의 따뜻한 밥 한 끼를, 손주들의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를 원한다.

그분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알리지 못한다. 외로워도 외롭다고 말하지 못한다.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자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입을 닫은 그분들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유명 같은 존재가 된다.

어쩌다가 우리는 노인에게 관심조차 잃게 됐을까? 어쩌면 공포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노후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한 채 늙으신 그분들을 보면, 자신의 노년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져 외면하는지 모른다.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니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대중만 보니 오해가 생기고, 뼈뺏하게 바라보니 편견이 생긴다.

내가 만난 노인들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했다. 다만 자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잊었을 뿐.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그들의 노고와 가치를 잊어서 그들도 자기 노고와 가치를 잊어버렸다. 노인은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는 사람이 아니다. 아직도 힘이 있고, 여전히 일할 수 있다. 그럴 기회가 드물 뿐.

우리 사회가 나이 늙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도 곧 늙는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노인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노인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한국은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이 방법뿐이다.

Remember, “Life is not Easy.”

교양과 엄혁 교수

To the students who successfully finished their first year of university, congratulations. It was a difficult and unique way to start your adulthood. Even for us professors, it was definitely a learning curve to put our lectures online and teach students through video. For us all, we experienced something out of the unexpected. This abnormal adjustment to COVID-19 has rob us of our right to live a normal life. This year and probably the next two years, will be far from normal. Our near future is in disarray, with no answer in sight. If you feel you have lost a few years of your life, you are absolutely right to feel so. However, it is in these unexpected twists and turns, which makes our lives difficult, and will define who we are.

It is very easy to say, life is unfair. Why do they have everything and I have nothing? This is the entitlement trap. Entitlement means when you feel you deserve to have something, even though you may not have earned it. The best example is your inheritance. Your parents earned and saved money their whole lives, but when you get married, you expect them to buy you an apartment, car, furniture or receive a large sum of money. There is no official rule stating that your parents have to do this. You feel you are entitled to it because you are their son or daughter. This is the trap, by expecting the entitlement; you might try as hard as to achieve your potential goals. If you do not receive your entitlement, then you feel like you are a victim. “Life is unfair.” However, in reality, you are not a victim. This is the delusion of the entitlement trap.

During this past year, we had a lot of unexpected personal time. How we spent this time differs among us. But, one thing is for clear, our personal habits dominated us. Look back and see what you have accomplished. I said I would spend time with the family, catch up on my readings, watch some movies I wanted to see, exercise, and lose weight. These were my personal goals I set out to do over the course of the pandemic. Seeing my beautiful daughter grow, watching too many movies, not exercising and gaining a potbelly, I realized I failed to achieve some goals. Why didn't I achieve my goals? It is because of my personal habit of procrastination. A habit I had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and still have it today.

“Life is not easy” and “life is not fair.”

I think once we accept these facts that life is not easy and fair, we can achieve our full potential. If we work diligently and focus on ourselves without any expectations of receiving anything from anyone else, especially our parents. And, we stop comparing ourselves to people who have more than us, then we can move forward.

Next, once we realize our bad habits and overcome them, not by words but by action, we may be able to tap into our true talents. Then, using our talents by working through our sweat and tears, then our achievements will be that much more rewarding.

Anything we get as we strive to our own mountaintop will not be an entitlement but be our bonus in life.

Remember, “Life is not easy!”

“인생은 쉽지 않다” 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번역 강은정

대학 1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인기 시작은 어렵고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들에게도 강의를 온라인에 올리고 영상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확실히 학습 커브 (배워나가는 변화 과정)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COVID-19에 대한 이러한 비정상적인 조정은 우리에게서 정상적인 삶을 살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올해와 아마도 향후 2 년은 정상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는 답이 보이지 않고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년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그렇게 느끼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예기치 않은 우여곡절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 할 것입니다.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말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왜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격 함정입니다. 자격이란 여러분이 획득하지 않았을지라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예는 여러분의 상속입니다. 부모님은 평생 돈을 벌고 저축했지만, 여러분이 결혼하면, 여러분은 아파트, 자동차, 가구를 사거나 많은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아들이나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자격을 기대함으로써 오는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잠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격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피해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자격 함정의 착각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우리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습관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뒤돌아서 여러분이 이론 것을 보십시오. 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못다 한 독서를 하고, 제가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고, 운동하고, 살을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염병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정한 개인적인 목표였습니다. 저의 사랑스러운 딸이 성장하고,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운동을 하지 않고, 나온 배를 얻게 된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미루는 습관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가졌던 습관을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다” 와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저는 일단 우리가 삶이 쉽고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다른 사람, 특히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기대 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한다면,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단 우리의 나쁜 습관을 깨닫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면, 우리는 진정한 재능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땀과 눈물을 통해 일함으로써 우리의 재능들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성취는 훨씬 더 많은 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향해 노력하면서 얻는 모든 것들은 자격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해설이 있는 시 >

바닷가 서어나무



김영숙 시인
전한국문인협회 안산지부 회장

바다 끝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간에 노을이 탄다

땅거미가 섬 끝으로 올라올 때면
그리움이 서서히 발목부터 차오른다

낮설고 비릿한 바람이 몸의 구석까지 흔들 때면
빛금 쳐진 노을빛 사이로 잊혀졌던 기억들이 쏟아진다
오래도록 저물지 못해 젖은 날들
작은 아픔에도 덜컥거리며 서툰 시간들
구겨진 채 서랍에 웅크린 아팠던 순간들
나뭇가지의 흔들림과 슬픔의 주름 사이로
기억의 파문이 후렴처럼 일렁인다
바다 쪽으로 귀를 키우고
해풍을 타고 오는 꽃향기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온몸을 힘껏 기울였다
말랐던 슬픔이 눈물을 다 흡수해 버렸다

견디는 길엔 섬들이 서로 길을 내는 바다가 있다

시의 배경은 영흥도 십리포 서어나무 군락지입니다.

바다의 출렁임을 지나 바람에 밀려 도착한 곳은 영흥도 십리포,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나의 머리채를 세차게 잡아챌다. 다섯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시선은 서어나무 군락지를 향했다. 나무를 천천히 들여다보니 울퉁불퉁한 것이 참으로 독특하고 보디빌더 근육 같다. 서어나무는 모래땅 거친 바람에도 잘 견디며 특히 바다의 염분에 강하고 웬만한 추위나 건조나 대기오염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강하다. 척박한 환경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거침없이 바람과 맞서 다져진 단단한 근육질 몸매를 가진 것이다. 대부분 모든 생물은 바람을 따라 늙는다. 서어나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해 가지를 뻗는 것은 아마도 견딜 방법일 것이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 가지를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고난도의 견딤이었겠는가? 울퉁불퉁함은 그 거친 세월과 온몸으로 맞선 흔적이며, 굴곡 사이사이엔 지나온 시간만큼 역경의 사연들이 배어있는 것이다. 애잔하면서도 멋스럽다.

우리의 삶에도 피치 못할 고난을 만나게 된다. 그럴 땐 정면으로 맞서 치열하게 겨루며 삶의 근육을 단단히 다져 결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의 길도 어디 평지로 된 곧은 길만 있겠는가? 정말 내딛기 어려운 험한 길도 만날 것이다. 허나 지나고 나면 결을 만 했다고 여길 것이다.

울퉁불퉁함이 매력적이고 멋스런 서어나무가 오늘도 해풍과 맞서며 한 문장을 던진다. “어떤 고난이든 견딜 수 있다” 라고, 바다 끝, 견딤의 시간 위로 해풍의 비릿한 냄새가 꽃향기가 된다. 햇살은 빗살처럼 나뭇잎 사이로 마구 쏟아지고 저편 하늘엔 구름이 등을 굽혀 붉은 노을을 업고 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섬과 섬 사이를 돌고 있다.

